

## 중소규모 산업장 미혼 근로여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성현\* · 박민향\*\*

영세산업장의 미혼 근로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미혼 근로여성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이 성에 대한 태도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세산업장 보건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저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인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6명의 미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성에 대한 지식 및 행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작업조건에 대한 만족도,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대수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은 대부분 19세부터 20대 초반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기로 이행중인 준비과정에 속한 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음주율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근무조건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지만 임신원리 등 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낮고 성이나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경험이 매우 낮았다. 성에 대한 태도로서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이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혼전 동거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혼전 성경험은 약 15% 정도였다. 대수회귀분석 결과 혼전 순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는 가족수가 적은 경우, 하숙이나 지취를 하는 경우, 성지식이 높은 경우, 근무기간이 긴 경우 등이 영향을 미쳤고, 성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피임지식이 높은 경우였다. 성경험은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는 달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한 후, 피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경인산업보건연구원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영세산업장의 미혼 근로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장의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정보화사회를 향한 변화에 직면하여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가치체계, 문화체계 등도 크게 변화되어 전통적 가치와 새롭게 대두된 가치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도종수 외, 1995).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각 사회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의 문제와 종족보존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도시화 또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혼전 성행위와 성범죄, 혼전 임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ESCAP, 1992). 우리 나라도 10대에 결혼하는 비율이 5% 미만에 속하는 국가로서 사춘기에서 결혼으로 이행될 때까지 긴 기간동안 성개방 문화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혼전 성행위와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성에 대해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우세하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갈등을 갖게 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와 행태는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서구문화의 영향과 여과되지 않은 각종 대중매체의 노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음란물 등 사회구조의 복합적 작용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경험한 가치체계를 요구할 뿐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성에 대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도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종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경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와 개별 상담을 받았을 때 대중매체나 집단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종권, 1994).

김영희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비디오에서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성지식을 얻는다고 조사되었다(김영희, 1993). 따라서 미혼남녀에 있어 성지식 습득은 학교나 직장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내용을 알기보다는 비디오나 대중매체를 통해 선별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미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알고 싶어하는 성지식 내용은 임신 또는 생식생리(22.5%), 월경생리(19.0%), 피임지식(12.2%), 성관계(8.1%), 성병(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연령이 10대 후반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피임지식이나 성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성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임신, 생식생리 및 월경생리에 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성교육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순복 외, 1992).

임경희의 공단지역 미혼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성의식에 대한 흥미로운 현상은 자신들의 상황에는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의 일일 때는 개방적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임경희, 1992).

한선희 등의 연구에서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인 미혼 근로여성이 69.8%로 여전히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한선희, 1990). 김한경 등의 산업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고 73.9%로 나타났다(김한경, 1991). 김영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순결·동정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보수적이었다(김영희, 1993).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임종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남성근로자의 42.4%가 여자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임종권, 1994). 더구나 임경희(1992)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근로자의 의식은 남성의 순결 상실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전 성경험을 가진 남성 중 44.7%가 매춘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사자와 첫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남녀의 혼전 순결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연관해서 이해될 수 있다(김영순, 1993).

이처럼 사회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성에 대해 더 보수적이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율도 높고 미혼모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 의식과 현실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률은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렵지만 홍문식(199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역내에서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 중 미혼 여성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환 등의 연구에서 공단지역 미혼여성의 성경험 비율은 30.4%이고 이중에서 약 9%가 실패 임신으로 인공유산을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경험자의 대부분(91.7%)이 첫 경험시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태환 외, 1996).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혼전 성관계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에 대한 남녀의 이중적 태도 속에서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혼전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사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등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혼전 임신의 결과, 결혼이라는 해결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인공유산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은 20세기 중반에 성교육을 학교 교과목으로 선택한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성교육 지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은 세워 놓고 있으나 실제로 진학지도 위주의 현행 교육제도에서 효과적인 성교육의 실시는 회의적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이 발달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1994년 통계에 따르면 교육을 마친 미혼여성의 50.5%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은, 1996). 일정교육을 마치고 취업하고 있는 미혼 근로여성들은 부모를 떠나 감독이나 지도가 없는 환경에 거주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들은 사회적·기능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되나 성적 행위자로서는 독립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성문제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강현숙, 1989).

또한 여성근로자들은 남성에 비하여, 생리적·신체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발달 주기상 청년기에 속하는 이들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결혼 후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행에 선행요건이 되는 친밀성이나 창의성을 획득하게 된다(Erikson, 1950). 생식에 관련된 여성구조와 기능은 작업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혼전 임신, 출산, 인공유산, 성병 등과 같은 생리적 보건상태의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원철,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들 미혼 여성근로자들은 사회적 추세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문제 예방이나 성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적절한 태도를 지녀야 하겠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혼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성상담, 그리고 성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은 미비하게 이루어져 왔다(김한경 외, 1991).

##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장의 미혼 근로여성을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성행태와 그 관련요인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 서비스와 정책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청소년집단 중에서 미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특히 미혼 근로여성의 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조사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장 근로여성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행태, 건강상태,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셋째, 성에 대한 지식, 행태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장 미혼 근로여성을 위한 보건관리사업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경인지역에 위치한 화장품, 전자제품, 가구, 구두, 도료, 양복 등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생산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집락표본추출(cluster sampling)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조사원을 배치하여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여 1주일 후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 중 70%인 약 700매가 수거되었으나, 50세 이상의 근로자 설문지는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키고 45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근로자 306명만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내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응답자의 특성

- 1)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정도, 거주지역, 거주상태, 가족규모 등 일반적 특성
- 2) 응답자의 건강행태와 일반적 건강상태
- 3) 산업장에서 작업조건과 직무만족상태
- 4) 작업장의 유해요인 노출에 대한 인식

### (2) 결혼에 대한 태도

- 1) 결혼과 관련된 태도
- 2) 이상 자녀수
- 3) 결혼 후 직업선택에 대한 태도

### (3) 성과 피임방법 지식 및 성행태에 관한 변수

- 1) 임신원리 지식 점수
- 2) 피임방법 지식 점수
- 3) 성에 관련된 태도와 경험상태

## 3) 분석방법

각 변수간의 상관성은 교차제표를 작성하여  $\chi^2$ 검정으로 살펴보고, 성관련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SAS통계분석 프로그램의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또는 대수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chi^2$ 검정결과 유의한 변수만을 선택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응답자 중 생산직은 사업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들과, 사무직은 공장내 관리, 사무행정, 경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총 분석대상자 306명 중 사무직이 124명, 생산직이 182명이었고 이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만 15세에서 19세까지 16.6%이고 20-24세군이 50.1%, 25세 이상이 24.3%였으며 10대의 비율은 사무직이 오히려 생산직보다 높았다. 교육정도는 9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었으며 사무직의 경우 약 11%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었다.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가 사무직 응답자 중에서 75%로서 생산직의 5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응답자들의 조사 당시 거처를 조사한 결과 사무직은 86%가, 생산직은 58%가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자취·하숙·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사별을 했거나 이혼·별거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약 15%이고,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는 약 21%였다. 응답자의 약 35%는 어머니가 밖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구수의 분포를 보면 4명 이하가 약 32%, 5명 이상이 68%로 비교적 대가족 형태를 보였고, 자신들이 느끼는 생활형편은 52%가 먹고 살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종교는 50%가 없다고 응답했고, 천주교가 6.5%, 기독교가 32%, 불교가 11%였다(〈표1〉 참조).

#### (2)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응답자의 59% 정도만이 하루에 세 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한 끼 혹은 두 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흡연율은 약 10%, 음주율은 약 62%였고, 음주자 중 16%가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응답했다.

〈표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일반적 특성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b>연령</b>			
15-19세	16.6	20.2	14.1
20-24세	59.1	58.9	59.2
25세 이상	24.3	21.0	26.6
<b>교육수준***</b>			
중학교 이하	3.6	1.6	5.0
고등학교	90.2	87.1	92.3
전문대 이상	6.2	11.3	2.8
<b>주거주지***</b>			
대도시	32.5	45.5	23.6
중소도시	26.2	19.5	30.8
읍·면·기타	41.3	35.0	45.6
<b>현재거처***</b>			
집	69.3	86.3	57.7
자취·하숙	19.9	13.7	24.2
기숙사	10.8	-	18.1
<b>모의 경제활동 및 동거상태***</b>			
동거·전업주부	50.0	59.7	43.4
동거·경제활동	34.6	33.9	35.2
안계심	15.4	6.4	21.4
<b>동거인수</b>			
2명 이하	6.8	4.0	8.7
3-4명	25.0	27.4	23.4
5명 이상	68.2	68.6	67.9
<b>생활형편*</b>			
넉넉한 편	33.7	34.7	33.0
먹고 살 정도	52.0	58.1	47.8
어려운 편	14.4	7.3	19.2
<b>종교</b>			
없음	50.0	50.8	49.5
천주교	6.5	5.7	7.1
기독교	32.0	33.1	31.3
불교	11.4	10.5	21.4

\*P &lt; 0.005, \*\*\* P &lt; 0.001.



또한, 34%만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대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조깅, 줄넘기, 등산, 산책 등의 순서였다.

식사횟수, 음주종류, 운동여부 등은 직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2> 참조).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약 37%뿐이었고, 20%는 현재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쉽게 피로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만성두통 등을 호소한 응답자는 각각 40% 이상이었으며, 현기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각각 31%, 21% 등이었다. 현재 건강상태, 유병률 등은 직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육체적 노동이 심한 생산직에서 쉽게 피로하다, 호흡이 가쁘다, 수면장애 등의 호소율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초경시 연령은 약 62%가 16세 이하였으며, 41%가 월경이 불규칙적이고 불순하다고 응답하고 있다(<표3> 참조).

〈표2〉 응답자의 건강행태

일반적 특성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1일 식사횟수*			
1회	6.2	7.3	5.4
2회	34.7	41.9	29.9
3회 이상	59.1	50.8	64.7
흡연여부			
안 한다	90.3	96.0	86.4
한다	9.7	4.0	13.6
음주여부			
안 한다	38.0	38.7	37.5
한다	62.0	61.3	62.5
마시는 술 종류***			
안 마신다	36.3	37.1	35.7
소주	16.0		19.8
맥주	41.2	49.2	35.7
기타	6.6	3.2	8.8

\*P < 0.005, \*\*\*P < 0.001.

〈표3〉 응답자의 일반적 건강상태 분포

일반적 특성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일반적 건강상태			
건강	36.9	31.5	40.7
보통	56.5	59.7	54.4
나쁜 편	6.5	8.9	5.0
현재 질병상태			
없다	79.9	76.6	82.1
있다	20.1	23.4	17.9
만성증상 호소율(%)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42.2	36.3	46.2
쉽게 피로하다*	46.1	39.5	50.5
소화가 잘 안 된다	40.9	43.6	39.1
호흡이 가쁘다*	12.3	8.1	15.2
현기증을 느낀다	30.5	27.4	32.6
안면·신체경련	10.7	8.9	12.0
땀이 많이 난다	14.6	11.3	16.9
두통(만성)	42.5	38.7	45.1
수면장애*	14.3	9.7	17.4
우울증	21.1	16.1	24.5
초경시 연령			
14세 이하	25.5	31.5	20.9
15~16세	36.0	32.3	38.5
17세 이상	26.5	27.4	25.8
모른다	6.2	2.4	8.8
없음	5.9	6.5	5.5
월경상태			
없음	4.6	2.4	6.1
불규칙	40.9	44.4	38.5
규칙적	54.6	53.2	55.5

\* P &lt; 0.005.

### (3) 직무만족 상태 및 근무조건

여성근로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 중 모든 항목에서 다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 이내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작업조건이나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 상태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일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6.2%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24.2%이고 나머지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직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승진과 인사정책이 공정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46.1%이고, “복지 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41.5%였다.

또한 작업장내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는 13.7%인 데 반하여 생산직 근로자는 27.2%로 유의하게 높은 호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가 45.8%였고, 특히 생산직 근로자는 과반수 이상이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 아니며, 한 번 이상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75.3%이며, 이 중에서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88%가 상시 근로자이고, 12%가 일용직 근로자였다. 미혼 여성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으며 저축하는 근로자는 31%였다(〈표4〉 참조).

## 2) 결혼에 대한 태도

### (1) 결혼희망 의지 및 결혼연령에 대한 의견

〈표5〉에 따르면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0%에 불과했고, 50%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가 따로 없고 결혼은 연령에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도 38% 정도로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25-26세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35.7%뿐이었다.

〈표4〉 대상자의 직무만족상태 및 근무조건

직무만족변수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대우에 대한 만족도			
만족	6.2	8.9	4.4
보통	69.6	69.4	69.8
불만족	24.2	21.8	25.8
승진에 대한 만족도*			
만족	4.9	3.2	6.0
보통	49.0	46.8	50.6
불만족	46.1	50.0	43.4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			
만족	11.8	9.7	13.2
보통	46.7	46.8	46.7
불만족	41.5	43.6	40.1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인식***			
노출되지 않음	78.3	86.3	72.8
노출되어 있음	21.8	13.7	27.2
과거에 직장경험*			
없다	54.2	61.3	49.5
있다	45.8	38.7	50.5
근무기간			
5년 미만	75.3	80.7	71.7
5년 이상	24.7	19.3	28.3
고용형태			
상시근로자	88.0	93.6	84.2
일용근로자	12.0	6.4	15.8
월급의 주사용처			
가족을 위하여	26.0	27.4	25.0
자신을 위하여	42.9	40.3	44.6
저축	31.2	32.3	30.4

\*P &lt; 0.05, \*\*\*P &lt; 0.001.

## (2) 자녀에 대한 태도

〈표5〉에서 보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는 2명이 69.2%로 가장 많으며,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40.5%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에 대하여 개방적 사고를 가진 미혼여성들 사이에도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자녀수와 이상남아수는 직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결혼 후 직업선택 희망과 관련된 태도

결혼 후 직장을 계속 갖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26%이고,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2%로서 나머지 62%는 유동적 태도를 보였으며 직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부모 부양에 대한 의견으로 “아들이 꼭 모셔야 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31.5%이고, “아들, 딸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49.4%, “따로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12.0%였다(〈표5〉 참조).

## 3) 성 및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 (1)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직장내에서 가족계획과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생산직이 21.2%, 사무직의 경우 8.9%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16% 정도만이 직장내에서 가족계획 교육을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평균 4가지 방법을 들어 보였고, 90% 이상인 한 가지 이상은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피임법은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며, 월경주기법 등 일시적 피임방법도 많이 알려졌다.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대체로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이 높으며 특히 콘돔, 정관수술 등 남성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6〉 참조).

### (2) 성에 대한 지식 및 관련요인

〈표6〉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신원리에 대하여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이고, 실제로 응답자들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신원리에 대한 문제를 4개 만들어서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성지식 지수를 척도화

〈표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꼭 해야 한다	10.1	7.3	12.0
하는 것이 더 좋다	39.9	44.4	37.0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50.0	48.3	51.0
여자의 적당한 결혼연령			
24세 이하	11.0	7.3	14.6
25-26세	35.7	34.7	36.4
27-28세	15.6	17.7	14.1
상관없다	37.7	40.3	36.4
이상자녀수*			
1명 이하	16.2	14.5	17.4
2명	69.2	75.0	65.2
3명 이상	14.6	10.5	17.4
이상남아수			
없어도 된다	59.4	65.3	34.7
1명 이상	40.6	55.4	44.6
결혼 후 직장 선호			
꼭 갖고 싶다	26.3	33.9	21.2
형편에 따라	61.3	54.7	65.2
갖지 않겠다	12.3	10.5	13.6
시부모와 부양에 대한 의견*			
아들이 부양	31.5	30.6	32.1
아들딸 상관없다	49.4	52.4	47.3
따로 살아야 한다	12.0	13.7	10.9
모르겠다	7.1	3.2	9.8

\*  $P < 0.005$ .

〈표6〉 가족계획 및 성에 대한 지식 및 정보원

성·가족계획 및 지식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b>가족계획 교육 여부*</b>			
받은 적 없다	83.8	91.1	78.8
받은 적 있다	16.2	8.9	21.2
<b>피임방법 인지율(%)</b>			
먹는 피임약*	69.8	75.8	65.8
콘돔**	73.4	83.1	66.9
자궁내 장치	39.6	41.9	38.0
난관수술	34.4	37.9	32.1
정관수술**	40.9	50.8	34.2
월경주기법	56.8	62.9	52.9
질외 사정*	20.1	23.4	17.9
질좌약	19.2	20.2	18.5
피임방법 인지수(평균)	(4.1)	(4.6)	(3.8)
(분포)			
모름	7.5	1.6	11.4
1가지	7.8	4.8	9.8
2가지	23.4	16.1	28.3
3가지	41.6	50.8	35.3
4가지 이상	19.8	26.6	15.2
<b>임신원리에 대한 지식</b>			
잘 알고 있다	45.0	47.2	43.5
대강 안다	45.0	47.2	43.5
모른다	7.8	3.3	10.9
평균 임신생리지식지수***	2.6	3.0	2.3
<b>성교육 여부</b>			
받은 적 없다	85.1	84.7	83.2
받은 적 있다	14.9	12.1	16.8
<b>성 상담 희망 여부</b>			
상담희망	36.0	43.6	31.0
모르겠다	50.7	46.7	53.2
혼자서 해결하겠다	13.3	9.7	15.8

\* P < 0.05, \*\* P < 0.01, \*\*\* P < 0.001.

한 결과 0점에서 4점까지 분포되며 전체 평균점수가 2.6이고, 사무직이 3.0, 생산직이 2.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에서 이성교제, 성, 모자보건, 임신원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았다고 답한 근로자는 15%이고, 앞으로 성문제를 상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36%였다.

이 결과는 영세산업장 여성근로자들의 보건관리사업에서 성과 가족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7〉에서는 성지식 점수와 관련요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chi^2$ 검정결과 성지식과 유의한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모와 동거상태, 직종, 근무기간, 순결에 대한 태도, 성교육 여부, 피임방법 지식점수를 선택하여 다변량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무직인 경우,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순결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장내에서 성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들로 성지식을 18% 정도 설명하고 있다(〈표7〉 참조).

〈표7〉 다변량 회귀 분석결과 성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요인	$\beta$ 계수	표준오차
모와 동거상태	0.25*	(0.12)
직종	0.51**	(0.12)
근무기간	-0.19	(0.14)
순결에 대한 태도	0.38**	(0.12)
성교육 여부	-0.23	(0.17)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0.10**	(0.02)
결정계수( $R^2$ )	0.1845	
F검정	$P < 0.001$	

\*  $P < 0.05$ , \*\*  $P < 0.01$ .

#### 4) 성행태 및 관련요인

##### (1) 성에 대한 태도 및 경험분포

“미혼여성들이 결혼 전에 육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하여 “안 된다”라는 응답이 53.3%였고, 결혼 약속된 경우는 괜찮다는 응답이 11.0%, “억제할 필요없다”가 16.5%로 아직도 혼전 순결에 대한 보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전 동거에 대하여는 “안 된다”는 경우가 23.4%, 부모의 결혼 승인 후에는 해도 된다는 응답이 50.7%로 혼전 동거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혼전 육체관계에 대한 태도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는 직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표8〉 참조).

이성간의 교제는 약 6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키스 경험률도 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3.4%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은 이성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 데이트 때 연령은 13-19세가 23.7%로 10대에 성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경험률은 약 15%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이 19%로서 사무직 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미혼여성의 성경험은 우리 나라에서 많은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대부분 숨기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9〉 참조).

〈표8〉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혼전 육체관계에 대한 태도			
지켜야 한다	53.3	55.7	51.6
결혼 약속된 경우 괜찮다	11.0	9.7	12.0
없다	16.2	16.1	16.3
모르겠다	19.5	18.6	20.1
혼전 동거생활에 대한 태도			
안 된다	23.4	25.8	21.7
결혼 승인 후 해도 된다	50.7	46.8	53.3
부모 반대라도 괜찮다	10.7	14.5	8.1
모르겠다	15.3	12.9	16.9

〈표9〉 데이트 및 성경험 분포

성에 대한 태도	전체 (N=306)	사무직 (N=124)	생산직 (N=182)
데이트 경험 여부			
있다	62.7	65.3	60.9
없다(모른다)	37.3	34.7	39.1
첫 데이트할 때 연령			
경험 없음	39.9		41.9
13-19세	23.7	21.8	25.0
20-24세	34.4	38.7	31.5
25-28세	1.9	2.4	1.6
현재 데이트 여부			
하고 있다	23.4	24.2	22.8
하고 있지 않다	76.6	75.8	77.2
키스경험 여부*			
있다	41.6	57.8	42.2
없다	58.4	42.2	57.8
성경험 여부**			
있다	14.9	8.9	19.0
없다	85.1	91.9	81.8

\* P &lt; 0.05 \*\* P &lt; 0.01.

## (2)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을 찾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혼전 순결에 대하여 보수적인 경우와 개방적인 경우로 나누고 독립변수들을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chi^2$ -검정을 한 결과 거주형태, 식구수,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로자의 근무기간, 어머니와 동거상태, 피임지식, 성지식 등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표10〉 참조).

종속변수를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0으로, 나머지를 1로 하고 〈표10〉의 결과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표11〉과 같이 이분변수로 하여 다변량 대수회귀모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혼전 순결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관련있는 변수는 식구수가 적은 경우, 거주형태가 자취 혹은 하숙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근무기간이 긴 경우, 임신원리 지식이 높은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표12〉 참조).

〈표10〉 응답자의 특성별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꼭 지켜야 한다	기타
전체	306(100.0)	164(53.6)	142(46.4)
거주형태*			
자가	212	56.6	43.4
기숙사	33	66.7	33.3
하숙·자취	61	36.1	63.9
연령			
15-19세	51	58.8	41.2
20-24세	182	56.6	43.4
25세 이상	75	41.3	58.7
종교			
없음	153	51.0	49.0
기독교·천주교	118	58.5	41.5
불교	35	48.6	51.4
식구수***			
1-2명	21	9.5	90.5
3-4명	77	42.9	57.1
5명 이상	210	61.4	38.5
모의 경제활동 및 동거상태*			
전업주부	153	49.0	51.0
경제활동	106	55.7	44.3
없음	47	63.8	36.2
음주여부			
전혀 안 한다	117	49.6	50.4
마신다	191	55.5	44.5
근무기간*			
5년 미만	232	56.5	43.5
5년 이상	76	43.4	56.6
건강상태**			
만성피로 없음	178	60.1	39.9
있음	130	43.9	56.2

가족계획 · 모자보건 교육 여부

직장에서 받은 일 없다	280	54.6	45.4
직장에서 받은 일 있다	28	39.3	60.7

성교육 여부

직장에서 받은 일 없다	262	55.0	45.0
직장에서 받은 일 있다	46	43.5	56.5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한 가지 방법도 모른다	66	66.7	33.3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	242	49.6	50.4

성(임신원리)에 대한 지식\*\*\*

0-2점	119	63.9	36.1
3-4점	189	46.6	53.4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1〉 혼전 순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대수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 및 분포

변수이름	코드내용	분포 N(%)
종속변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0. 지켜야 한다	164(53.2)
	1. 기타	144(46.8)
독립변수		
거주형태	0. 집 · 기숙사	247(80.2)
	1. 하숙 · 자취	61(19.8)
식구수	0. 4명 이하	98(31.8)
	1. 5명 이상	210(68.2)
건강상태	0. 건강하다	178(57.8)
	1.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130(42.2)
근무기간	0. 5년 미만	232(75.3)
	1. 5년 이상	76(24.7)
피임지식	0. 모르거나 한 가지만 안다	90(29.2)
	1. 두 가지 이상 안다	218(70.8)
임신원리 지식	0. 잘 모른다	119(38.6)
	1. 비교적 잘 안다	189(61.4)

〈표 12〉 대수회귀모형에 의한 혼전 순결태도 결정요인

요인	$\beta$ 계수	표준오차	비차비
거주형태	0.96**	0.32	2.63
식구수	-0.99**	0.27	0.37
건강상태	0.59*	0.25	1.82
근무기간	0.74**	0.29	2.08
피임지식	0.14	0.28	1.15
임신원리 지식	0.82**	0.27	2.27

\*  $P < 0.05$ , \*\*  $P < 0.01$ .

(3) 성경험과 관련요인 분석

〈표13〉의 교차제표에서  $\chi^2$ -검정결과 성경험 여부와 상관성을 보인 변수는 거주 형태, 근무기간, 식구수, 피임방법지식, 성지식 등이었으며, 이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대수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14〉와 같다.

분석결과 성경험과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근무기간과 피임지식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피임지식이 높은 경우 성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직장경험이 적고 성에 대한 태도나 지식이 적은 10대 청소년층에서 성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층에서 피임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응답자의 특성별 성경험 분포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성경험 여부	
		없음	있음
전체	308 (100.0)	262 (85.1)	46 (14.9)
거주형태*			
자가	212	88.7	11.3
기숙사	33	72.7	27.3
하숙·자취	61	78.7	21.3

근무기간**			
5년 이하	232	89.2	10.8
5년 이상	76	72.4	27.6
연령			
15~19세	51	84.3	15.7
20~24세	182	87.4	12.6
25세 이상	75	80.0	20.0
종교			
없음	153	82.4	18.7
기독교·천주교	118	88.1	11.9
불교	35	85.7	14.3
식구수***			
1-2명	21	90.5	9.5
3-4명	77	88.3	11.7
5명 이상	210	83.3	16.7
건강상태			
만성피로 있음	178	85.4	14.6
만성피로 없음	130	84.6	15.4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지켜야 한다	164	86.0	14.0
개방해도 된다	144	84.0	16.0
성교육 여부			
성교육 받은 일 없다	262	87.0	13.0
성교육 받은 일 있다	46	73.9	26.1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한 가지 방법도 모른다	90	77.8	22.2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	218	88.1	11.9
성(임신원리)에 대한 지식*			
낮음	119	79.8	20.2
높음	189	88.4	11.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4〉 대수회귀모형에 의한 성경험 결정요인 분석

요인	$\beta$ 계수	표준오차	비차비
직종	0.68	0.38	1.96
거주형태	0.49	0.38	1.63
근무기간	-1.12**	0.34	0.33
식구수	0.39	0.38	1.48
피임지식	0.71*	0.35	2.03
성지식	0.37	0.34	1.45

\*  $P < 0.05$ , \*\*  $< 0.01$ .

## 5. 토의

우리 나라에서 초기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달리 최근 들어 미혼여성들의 학력과 연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4년 홍문식 등의 조사(홍문식 외, 1984)에서는 생산직 여성근로자 중 10대가 43.2%, 고등학교 학력이 67.8%인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연령 중 15세에서 19세 사이가 14%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92%로 나타났다. 생활형편도 10년 전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했지만 본 연구에서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14.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과거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근로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혼여성들이 빈곤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취업하여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극복해 왔던 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생의 과정 중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 어려움, 학교성적, 삶의 가치관 등에 따라 대학진학을 포기 또는 연기했을 때 취직을 선택하고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생의 사건의 연속들이 정돈된 삶인지 흐트러진 삶인지에 따라 결혼 후의 심리적 안정성, 이혼 등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ogan, 1986; McLanahan and Sorensen, 1985;

Rindfuss, 1991). 여기서 생의 사건의 연속은 주로 교육, 군복무, 취업 및 실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가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결혼이나 첫 출산을 할 때를 지칭한다. 또 정돈된 삶과 흐트러진 삶은 결혼 혹은 첫 출산을 할 때까지 생의 사건의 연속이 규범적 모형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결과 남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안정된 직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의 순서규범이 결혼 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생의 사건의 연속이 취업여부와 결혼시기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은기수, 1995). 이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직장경험은 정돈된 삶의 구조일 수도 있고 흐트러진 삶의 구조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는 미혼여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규범에서 흐트러진 삶을 경험했을 때 성인기로의 이행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생의 과정 중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람직한 결혼으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의 구조를 갖게 되면 정돈된 삶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혼전 성경험, 혼전 임신 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규범에서 흐트러진 삶의 구조로 보여진다.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 직장의 복지, 작업환경 등 제도, 보건 또는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상태 등 개인적 특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미혼 여성근로자들의 식사습관은 매우 불규칙적이고 음주율이 62%이며 여가에 18%만이 등산, 수영, 테니스, 에어로빅 등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37%로 나타났다. 대우, 승진, 복지후생 등에 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는 10% 정도로써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질 높은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10년 전에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연령에 결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미혼여성들 사이에 이러한 통념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생산직 미혼 근로여성의 90%가 결혼을 원했고, 여자의 경우 결혼 적령기는 26세 이전이라는 반응(89%)을 보였으나(홍문식 외, 1984) 이 조사에서는 과반수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38%의 응답자가 “결혼연령은 상관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의 반응은 1984년에



27.6%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59.4%로 아들선호에 대한 가치는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후 직장을 갖지 않겠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생의 과정 중 성인기로의 이행은 결혼, 결혼과 직업의 병행, 독신으로 직업선택 등 다양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규범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성문화도 급속한 변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성에 대하여 여전히 보수적 규범을 갖고 있어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응답이 1984년 조사에서는 16%, 이 조사에서는 15%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혼전 성행위 경험률은 사무직이 9%, 생산직이 19%로 나타났고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권태환의 연구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성행위 경험률은 30.4%였다(권태환 등, 1996). 1993년 미혼 남성근로자의 성행위 경험률은 78%이고 이중 반수가 성행위 대상자는 친구, 애인, 약혼자임을 감안할 때(임종권 등, 1994) 미혼 여성근로자들 중에서 이미 혼전 순결을 상실한 경우가 20% 이상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권태환 등(1996)의 연구에서 혼전 순결을 상실하여 임신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 중 9%이고 이들은 대부분 인공유산으로 종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성이나 피임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지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생의 과정 중 성인기의 준비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청년기의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내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정돈된 삶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사회적·경제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받는 이들 미혼 여성근로자들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과정에 있는 동년배들과는 다른 집단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생리적·신체적으로 남성근로자와 다르며 결혼 후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산업장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지나 무방비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금기시되어 드러내 놓기 꺼려하는 부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세분

화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짧은 기간동안 일부 산업장의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료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자료는 일부지역(경인)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 나라 중소기업도 산업장의 전체 여성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표본의 수가 충분치 못하였다. 둘째, 조사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낮은 응답자의 자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선택편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 나라에서는 성에 대하여 숨기려는 정서를 갖고 있어 성관련 변수에 대한 응답자 편의(response bias)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독립변수 중 위험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분변수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하였으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분석방법에서 적용한 다변량회귀분석과 대수회귀분석 적용에서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인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소기업체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미혼 여성근로자 3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응답자 중 사무직이 124명, 생산직이 182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5-19세가 16.6%, 20-24세가 50.1%, 25세 이상이 24.3%였다. 교육정도는 9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고 전문대 이상이 6.2%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산 거주지역은 약 59%가 도시지역이었고, 69.3%가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들이 느끼는 생활형편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4%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없는 응답자가 15%,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35%이고 가족이 4명 이하의 소규모 가정이 32%였다.
- 2) 건강행태와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59%가 하루 세 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흡연율은 약 10%, 음주율은 62%로 나타났다. 건강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이고 20.1%는 현재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경시 연령은 약 62%가 16세 이하였고 현재 41%가 월경이 불규칙적이고 불순하다고 응답하였다.

- 3) 직무만족상태로서 대우에 대한 만족도는 6.2%,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4.9%,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11.8%로 불만족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21.8%였다. 과거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가 45.8%, 근무기간도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24.7%였다. 월급을 타서 자신을 위하여 쓰고 있는 비율은 42.9%이고 저축하는 근로자는 31.2%였다.
- 4) 결혼에 대한 태도로서 결혼 희망의지를 조사한 결과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1%,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은 50.0%로 나타났다. 적당한 결혼연령은 25-28세가 51.3%, 연령에 상관없다가 37.7%로 조사되었다. 이상자녀수는 2명이 69.2%이며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40.6%로 나타났다.
- 5) 결혼 후 직업선택 희망과 관련된 태도로서 결혼 후 직장을 계속 갖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6.3%,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 형편에 따라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였다. 시부모 부양에 대한 의견은 49.4%가 “아들·딸 상관없이 모셔야 한다”고 응답했고 “아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31.5%였다.
- 6) 직장내에서 가족계획과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6.2%였다. 그러나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90% 이상 이 한 가지 이상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피임법은 콘돔으로 인지율이 73.4%였다.
- 7) 임신원리에 대한 지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6점이었고 생산직 근로자의 지식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성교육을 직장에서 받아 보았다는 응답자는 14.9%며 직장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36%이고 모르겠다는 유동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50.7%였다. 성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직종,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순결에 대한 태도, 어머니와 동거여부 등이었다.
- 8) 혼전 순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나타낸 응답자는 53.3%이고, 혼전 동거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3.4%였으며 혼전 성경험률은

14.9%로 나타났다.

- 9) 다변량 대수회귀모형에 따르면 혼전 순결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와 관련있는 변수는 식구수, 거주형태, 임신원리 지식, 근무기간으로 분석되었으며, 성경험과는 근무기간과 역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피임지식이 많을수록 성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미혼 여성 근로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문제를 포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숙(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 관계 연구”, 《최신의학》 32(2).
- 권태환·전광희·조성남(1996),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 수출공단지역 사례 연구”, 한국인구학회발표논문.
- 김영순(1993), “여성지 '수기' 에 나타난 성문화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 김영희(1993),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승권(1992), “한국 미혼남녀의 성 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조사 특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
- 김한경 외(1991), <산업체 가족계획 및 성교육프로그램 효과 및 전략개발연구>, 가족계획협회.
- 도종수 외(1995), “신세대의 특성이해를 위한 의식조사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20.
- 박정은(1996), “여성취업과 건강문제”, 한국모자보건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89-110.
- 이원철(1989), “화학적 환경과 여성노동”, 《한국산업의학》 28(1).
- 임경희(1992), “공장 생산직 미혼 여성 근로자의 성의식과 성문화”,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 임종권 외(1994), “미혼 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 5.6
- 장순복 외(1992), “미혼 근로 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 한선희·김신미(1990),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최신의학》 33(2).
- 한성현·김주자·안재익(1995), “중소 규모 산업장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와 그 관련 요인 분석”, 《한국역학회지》 17(2): 235-247.
- 홍문식·서문희(1984), <미혼 근로 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89.
- 홍문식(1990), <인공 임신 중절 실태에 관한 연구: 일부 중도시 지역의 시술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rikson, E. H. (1950), "Childhood &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
- ESCAP(1992), "Adolescent Reproductive Behavior: Asian and Pacific Region", *Population Research Leads* 41.
- Hogan, D.P. and M. M. Astone(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30.
- McLanahan, S. S. and A. B. Sorensen(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ited by Glen H. Eld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indfuss, R. R(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e,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28: 439-512.

abstract

---

**The Study on the Sexual Behavior of Unmarried Female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Sung-Hyun Han and Min-Hya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stribution of the variable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married female workers. This study was surveyed to the 306 unmarried women who worked in the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in Kyungin area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knowledge of sex, sexual behavior,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working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work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pondent's age are mostly early of twenties and their education level are high school and more. They recognize that their health condition is not so good but they hardly try to improve health condition. They think that their working condition are mostly unsatisfied and they also believe that they expose themselves to the toxic working environment.

Although their knowledge of sex are low they have few chances for the education of sex and family planning. Their attitude of premarital sex are conservative but the rate of approval of living together before marriage are high and the rate of premarital sex is around 15 percent. The premarital sex behavior are positively related with family size, living condition, knowledge of sex and working period but the sex experiences are negatively related with working period and knowledge of sex. As a result we suggest that the sex education and consultative program are necessar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unmarried working women in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 원고제출 및 집필요강

---

### 원고제출과 게재

1. **한국인구학**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인구학**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논문이나 글은 다음의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151-742)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내 한국인구학회  
전화: 884-1557

3. 제출원고는 우리말로 쓴 것으로 아래의 원고작성지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원고는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게재결정 이후 원고를 담은 디스켓을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5. 제출한 원고는 평가자 2명의 익명심사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또는 수정제의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작성

1. 연구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글자크기는 10, 여백은 용지 상하좌우 끝에서 3센티미터(약 10글자 정도)를 두며 한 페이지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영문요약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5. 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않겠다고 함으로써 모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험추구성향은 사건의 발생확률, 사건발생시의 예상되는 피해 등에 반비례해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험추구성향은 경제학적 모형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의 모험추구성향을 단순합산하여 개인별 모험추구성향의 척도를 구성한 결과 그 분포는 표6과 같다. 여섯 개의 선택지 중 응답자들은 평균 2.36개의 위험을 선택하였고, 표준편차는 1.38개였다. 한편, 모험추구성향은 개인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4, 40대가 1.9, 50대가 2.0으로서 20대의 모험추구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1.96) 보다는 남성(2.77)의 모험추구 성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발견은 왜 자동차보험회사가 젊은 남성미혼자들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표6 개인별 모험추구성향의 분포

모험추구선택수	빈도	%
0	72	9.21
1	140	17.90
2	234	29.92
3	174	22.25
4	107	13.68
5	44	5.63
6	11	1.41
전체	782	100.00

강박증(obsession)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반복되며, 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데 방해를 받는 증상을 의미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포함한다. 강박관념 또는 강박사고에는 자아 이질적(ego-dystonic) 관념·사고·상상 혹은 충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포함한다. 강박행동은 특정한 행동 또는 일련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그